

제안 204a

API 대유행 및 그 이후의 API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비난하는 결의안

미국의 미국의 2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API)이 의료, 운송 및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COVID-19 대유행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API 근로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없이 일하고 인종 차별, 편견 및 외국인 혐오증에 시달리면서 전세계 대유행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출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공개 성명에서 미사여구를 통해 API에 대한 역사적 차별을 계속하고 있으며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층의 이민자와 유색 공동체는 공중 보건 위기 또는 전쟁 중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근로자, 인종 또는 이민 상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마스크, 검사, 인공 호흡기, 병상이 필요하며 최전선 근로자에게는 고용주 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이 작업장 안전 보호, 위험 수당, 유급 병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민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가 정부 구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업 구제 금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비난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API 노동자의 기여를 높이고, COVID-19 대유행 이후에 동맹국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Union의 책임입니다.

서비스 종업원 국제 조합(SEIU)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인종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합니다.
2. 이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API 회원의 영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 조명하고 고양시킵니다.
3. 아시아인 혐오 공격 사건과 그 추이를 추적하고, 현 행정부, 선출 의원, 그리고 모든 후보자 및 그 지지자에게 인종 차별적 미사여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4. 노조 지도부, 후보, 선출자 및 동맹과 협력하여 대유행 기간과 그 이후에 우리 공동체에서 아시아인 혐오 공격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힘을 모읍니다.
5.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6. SEIU의 API 회원 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하여 API 공동체에 대해 증가하는 공격에 대처하는 조치를 추가로 알리는 것을 포괄하는 노조 차원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7. COVID-19를 인종차별의 구실로 삼아 이러한 혐오 정서를 부추긴 다수의 선출 의원 및 정부 관료들과 현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 SEIU의 API 멤버십 중 유권자를 동원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국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